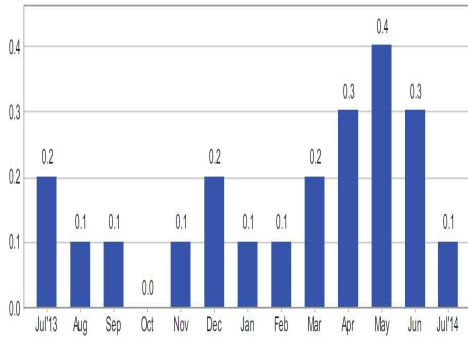


최근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에 대한 월가의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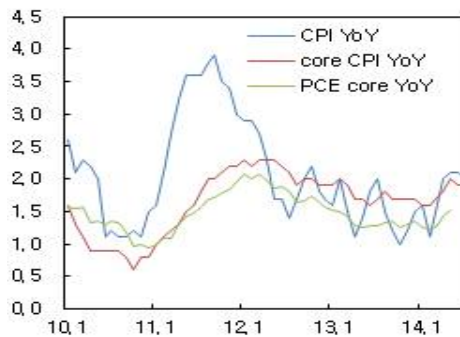
- 최근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5개월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
 - 7월 CPI(8.19일 발표)는 전월대비 0.1% 상승하여 최근 5개월래 상승 폭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, 전년동월대비로도 2.0% 상승률을 기록하여 상승세가 소폭 둔화(6월 2.1%)
 - 한편 7월 Core CPI는 시장예상치(+0.2%) 보다 낮은 전월대비 0.1% 오른 가운데, 전년동월대비로는 1.9% 상승률을 기록하여 전월수준을 유지

소비자물가 상승률(전월대비, %)



자료 : BLS

소비자 및 근원물가 상승률(전년동월비,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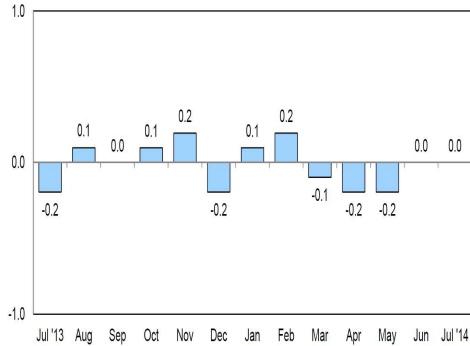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

- 이와 같이 최근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둔화된 것은 임금상승 등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시적 요인인 음식료품 가격이 상승(0.4%)하였지만 에너지 가격이 하락(0.3%)한 데 주로 기인
 - 7월중 시간당 실질임금 상승률(0.0%)을 살펴보면 지난달과 동일한 수준을 보이는 등 지난 1년간 큰 변화가 없는 모습
 - 가솔린(\$3.70(4월) → \$3.45(8.17일), 갤런당)과 에너지서비스 가격의 완만한 하락에 따라 에너지 가격은 전체적으로 하락

배부처 : 총재, 부총재, 금통위원, 감사, 부총재보, 경제연구원장, 외자운용원장
 작성자 : 김상훈 과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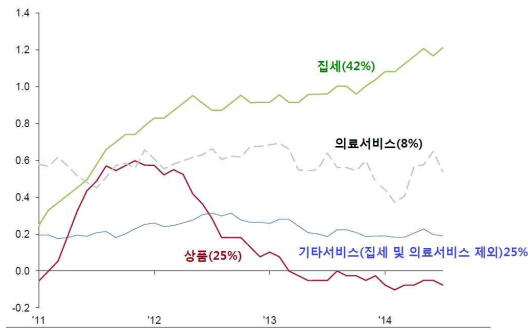
— 반면 집세는 물가상승의 상방압력으로 꾸준히 작용

시간당 실질임금 상승률(전월대비, %)



자료 : BLS

근원물가에의 기여도 추이(%)



자료 : Credit Suisse

- 물가수준이 연준의 목표 수준(Core PCE 물가 2%)을 지속적으로 하회하는 등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자산매입정책 종료 후에도 상당기간 정책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할 가능성(Fed friendly)이 커졌다고 평가(BOAML, Bloomberg, 8.19일)
 - 연준은 임금상승 및 신용확대(access to credit) 등 수요(비용)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제지표를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(FTN Financial, 8.19일)
 - 금일 발표된 신규주택착공건수가 8개월만에 최대수준(7월중 15.7%증가, 전월대비)을 보인 것이 향후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을 통한 신용확대로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
 - 미 연준 의장인 Yellen도 경기회복이 불완전하며 임금상승률 정체가 노동시장에서의 “significant slack” 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발언한바 있음(7.15일, 의회증언)